

책 자 형 선 거 공 보

수성 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 1·2동, 범물 1·2동, 파동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성구(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상식이 통하는 대구
새로운 희망의 시작

전)대구/부산 경찰청장

이상식 1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성구(을)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이상식	남	1966. 04. 27. (53세)	정당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찰학 박사)	전)대구지방경찰청장 전)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역상황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818,112	1,253,112	1,400,000	모 : 150,000	장남 : 15,000 차남 : 없음	육군병장 (만기전역)	장남 : 육군병장 (만기전역) 차남 : 3급 현역병 입영대상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57,837	149	0	해당없음
후보자	47,160	149	0	
배우자	10,009	0	0	
직계존속	628	0	0	
직계비속	40	0	0	

4. 소명서

농부의 아들에서 대구/부산 경찰청장으로



경찰대학수석입학의 인재

이상식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진학 가능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형편에 공부하고자 하는 여동생들을 위해 경찰대학에 진학,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경신고 바로 앞에서 하숙을 하던 때, 농사를 짓던 아버지께서 아들이 좋아하는 옥수수를 한 포대 가득 삶아 땀을 뻘뻘 흘리며 등에 지고 오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당시 교과서에 실렸던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공직에 바친 청춘

경찰대학 포함 32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큰 조직을 경영한 경험과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진 보람찬 시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구
이상식 1

정치를 시작하다

청춘을 바친 경찰직을 그만둔 후 촛불혁명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각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재인을 선택하다



2017년 3월 초,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만났습니다. 문 후보의 대구지역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

이낙연 총리 민정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에게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약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하고 진중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함께 근무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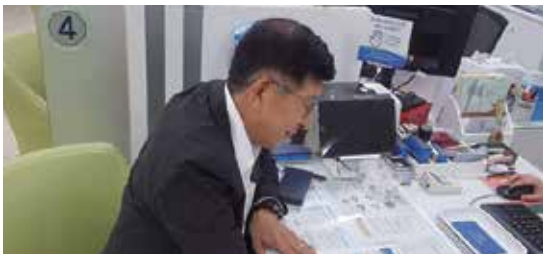


늘 약자 편에 서고 싶은 사람

영남일보

은행지점 지켜내고 '희망의 10만원 예금'

이상식 민주당 수성을 위원장 지점 폐쇄 소식 듣고 동분서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은행 범물1동지점 창구를 찾아 통장을 개설했다. 새로 만든 통장에 10만원을 예금했다. 이 위원장의 통장 개설은 대구은행 범물1동지점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사실 대구은행 범물1동지점은 폐쇄될 뻔 했다. (영남일보 7월5일 자 2면 보도)

이상식 민주당 수성을 위원장 지점 폐쇄 소식 듣고 동분서주 "인근 노인·장애 인 대거 이용" 은행에 자료 건네고 존치 부탁 창구서 통장 개설 인연 이어가

실제 대구은행은 창구 이용객 감소 및 은행업계 디지털·모바일 도입 추세에 따라 지난해 말 범물1동지점

이상식은 시골 농부의 아들입니다.

순박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은 평생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내가 만일'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새를 둥지 안으로 다시 넣어 줄 수 있다면 헛된 삶이 아니다'라는 구절을 늘 실천해 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에밀리 디킨슨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 맥진한 울새 한마리를
둥지로 되돌아 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상식이 통하는 대구
이상식1

말보다는 실천하는 사람

이상식은 모범생 이미지와는 달리 독심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는 씨름을 할 때 과감한 선제공격으로 자기보다 덩치 큰 선수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계포일락’

이상식의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집니다.
그는 말 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포일락 [季布一諾] 결코 번복되지 않는 믿음직한 약속을 가리킴

영남일보

이상식 위원장,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국비 반영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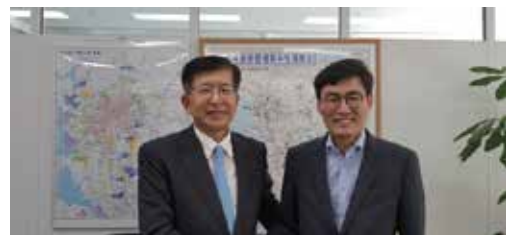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구를 지역위원장이 15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찾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예산을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엑스코선은 기존 도

每日新聞

이상식 민주당 수성을 위원장
“분양가상한제 수성구 빼달라” 요청

투기과열지구는 행정동별 구분 지정 촉구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을 지역위원장은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수성구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다



사람들은 TK 출신에 대구와 부산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제가 왜 민주당을 선택했느냐고 묻습니다.

남들이 가는 편안한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사람들이 가지
않은 험난한 길을 가느냐고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대구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시대와 역사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제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고 제 앞에 놓인
교난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뭇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노란 숲속에서 내 앞에 놓인 두갈래 길을 만나
사람들이 덜 간 길을 선택하였고 그 때문에 모
든것이 달라졌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중략...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상식이 통하는 대구
이상식1

대통령 앞에서도 소신을 말하는 사람

특히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 홀대론과 패싱론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에 조금 더 마음을 달라. 제(齊) 나라 환공은 적의 부하였고 자신에게 활까지 쏜 ‘관중’을 용서하고 등용해 중원의 패자가 됐다고 들었다”면서 “곧 있을 개각에서 대구·경북 인사들을 중용해 주시고 예타면제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영남일보 2019. 01. 28 靑 오찬간담회 참석한 이상식, 文대통령에 “TK 좀 챙겨달라” 中

每日新聞

[기고] 적폐 청산, 너무 오래 한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



새해인데도 식당에 손님이 없다. 사업을 하는 지인들도 예외 없이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왜 경기가 나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하는

지에 대한 뾰족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핑계 거리를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영남일보

靑 오찬간담회 참석한 이상식, 文대통령에 “TK 좀 챙겨달라”

예타면제 사업 등 관심 요청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 을’ 지역위원장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 홀대론

및 패싱론을 우려하며, 대구·경북을 챙겨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식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을 경찰간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대구 수성구를 지역위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상식 예비후보, “문 대통령 직접 대구 내려 와서 시민 격려하고 보살펴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코로나19’관련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23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상식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경로도 대부분 대구가 그 진원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와 청도 출신은 입영이 연기되는가 하면 대구 봉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 코로나19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저 이상식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핵심가치는 지키면서도 때로 할 말은 해야됩니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는 목숨걸고 지켜 주겠다’ 고 볼테르가 관용론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의견이 다르더라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TK 좀 챙겨달라!

영남일보

민주 이상식 예비후보 “추 법무부장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4·15 총선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대구 수성구을)가 17일 논평을 내고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에서 “요즘 항간에는 추 장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코드에 맞춰 정권에 위협이 되는 검사들을 내쳤다고 생각하는 검찰인사, ‘나의 명을 거역했다’는 장관의 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등이 비난의 주된 소재”라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일요신문

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환영... 국민 상식에 맡길 일”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대구 수성을)가 14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교수 고발 취하

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 칼럼에 대해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식이 통하는 대구
이상식 1

1

특급공약

경신고등학교를 이전하겠습니다.



[4·15 총선 레이더]
이상식 수성을 예비후보
“경신고 이전” 공약



대구 수성을=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신고 이전을 공약했다.

7일 이 예비후보는 “명문 경新高를 수성소
방서 건너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적극 추
진하겠다”면서 “재단과의 협의는 이미 끝

낸 상태며 사업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향후 과제는 임기
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신고 이전 계획의 배경으로는 ▷수성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악한 수성읍의 교육환경 개선 ▷경신고 주변 과밀화에 따른 교통



수성(갑), (을) 지역 균형발전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환경 제공

경신고 주변 교통체증 해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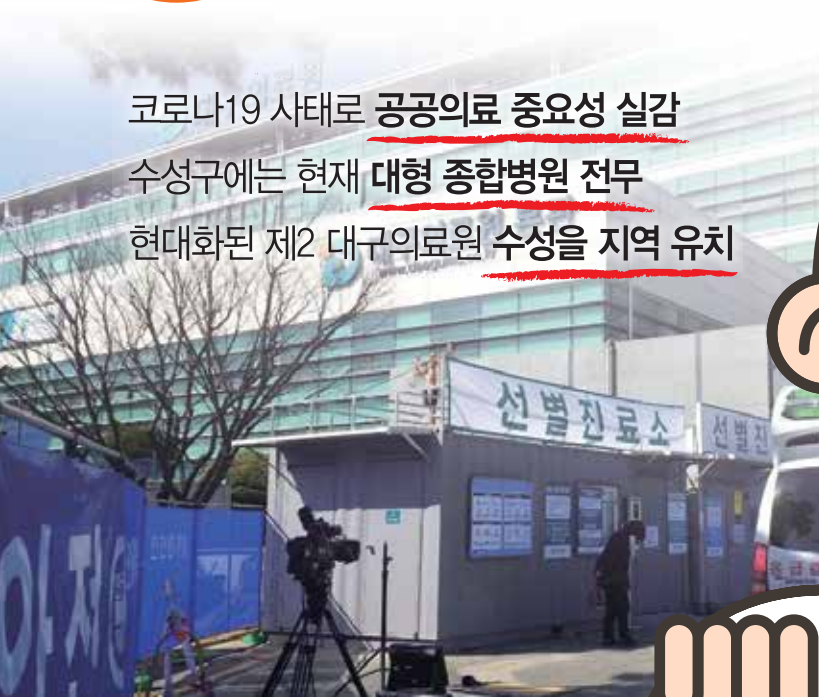
특급공약

제2 대구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중요성 실감

수성구에는 현재 대형 종합병원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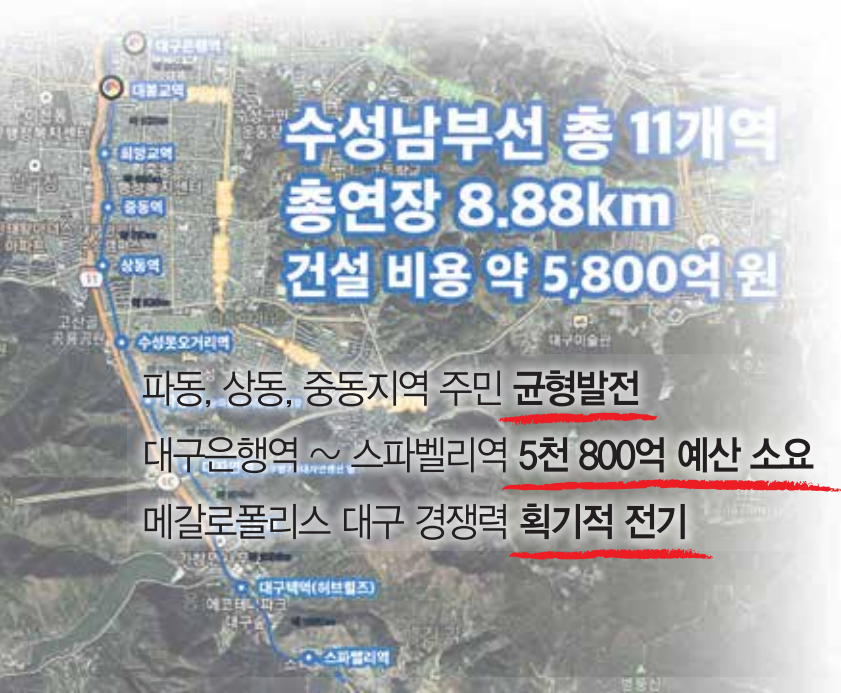
현대화된 제2 대구의료원 수성을 지역 유치



3

특급공약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수성남부선 총 11개역
총연장 8.88km
건설 비용 약 5,800억 원

파동, 상동, 중동지역 주민 균형발전
대구은행역 ~ 스파벨리역 5천 800억 예산 소요
메갈로폴리스 대구 경쟁력 획기적 전기

每日新聞

[4·15 총선 레이더]

이상식 수성을 예비후보
“가창과 수성동을 연결하는
‘수성남부선’ 신설 추진”



대구 수성을=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창과 수성동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신설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9일 “수성남부선은 그동안 수성구에서 도시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파동, 상동, 중동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향후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돼 전원주택단지, 연구단지, 대규모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를 대

4

특급공약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지역경제 살리기 해법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활성화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지역만 핀셋지정

4대특급공약
이상식1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나온 길

출생

1966 경북 경주 출생(경주 이씨)

학력사항

1982 ~ 1985 경신고등학교 졸업
1985 ~ 1989 경찰대학 졸업(5기 수석입학)
1989 ~ 199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9 ~ 2013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1990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1996.02 ~ 1998.03 주홍콩 총영사관 부영사(전)
2006.02 ~ 2008.08 주영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겸 영사(전)
2014.09 ~ 2016.09 대구/부산 지방경찰청장(전)
2017.07 ~ 2018.01 이낙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전)

저서

2019 가지 않은 길(학이사)

